

# 해외 최신 의약뉴스

편집인 남궁형욱

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 
(재)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

## 개요

60세 이전이나 폐경 후 10년 이내에 호르몬요법을 시작하는 경우 골다공증, 관상 동맥질환 등에 이점이 있다.

## 키워드

폐경 후 호르몬요법, 60세 이전 여성, 폐경 후 10년, 관상동맥질환, 유방암

### 호르몬 대체요법 투여시기가 중요하다. [Medscape Medical News, Mar 14, 2013]

폐경 후 호르몬요법을 60세 이전이나 폐경 후 10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갱년기 증상 치료법이며, 그 이점이 위험성을 크게 상회한다는 새로운 공식견해가 Climacteric 4월호와 Maturitas에 발표되었다.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폐경과 여성 건강을 다루는 7개의 주요한 국제 및 미국 학회가 모여 합의 후 발표되었고, 폐경 후 호르몬 요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하였다.

케이프타운 스틸렌보쉬 대학의 산부인과 토비 J. 드빌리어스 연구진은 60세 이전이나 폐경 후 10년 이내의 여성이 호르몬 요법을 시작한다면 이점이 더 많으며, 용량과 투여기간은 개인에 따라 달라야 하지만, 정맥 혈전색전증, 뇌졸중, 허혈성 심장 질환, 유방암과 같은 위험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.

### 주요 내용

- 폐경 후 호르몬요법이 60세 이전이나 폐경 후 10년 이내에 사용되는 경우 폐경과 관련된 증상 치료에 이점이 많다.
- 폐경 후 호르몬요법은 60세 이전이나 폐경 후 10년 이내 여성에서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.
- 무작위 임상연구와 관찰연구에서 표준용량의 에스트로겐을 사용한 폐경 후 호르몬요법은 60세 이전이나 폐경 후 10년 이내 여성에서 관상 동맥 질환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.
- 폐경 후 경구 호르몬요법은 정맥혈전색전증,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만, 60세 이전의 여성에서 그 절대 위험은 크지 않다.
-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한 폐경 후 호르몬 복합제요법 사용시 유방암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며, 이는 사용 기간과도 관련이 있다. 하지만 그 위험성은 작으며, 치료를 중단하면 감소한다.
- 화학적으로 합성된 제제를 이용한 호르몬 요법은 추천되지 않는다.
- 유방암 이력이 있는 여성에서 폐경 후 호르몬 요법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.

"폐경 후 경구 호르몬요법을 시작하는 일차 지표는 갱년기 얼굴홍조 발생의 감소를 위함이다. 또한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 용량으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하여야 하며, 개인에 따라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.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이 60세 미만과 폐경 후 10년 이내 여성에서 관상 동맥 질환 및 모든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, '감소할지도 모른다'는 문구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폐경 후 호르몬요법이

이들 연령대에서 심장 질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.”라고 포틀랜드 오리건 대학 의학부의 임상 역학자인 하 이디 D. 넬슨은 말했다.

#### 참고문헌

---

*Climacteric*. 2013;16:203-204.

#### 원문링크

---

<http://www.medscape.com/viewarticle/780862>

